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 유형 설화의 도입 서사적 기능 연구*

-터키 <봉사, 귀머거리, 벌거숭이> 유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홍윤**

차례

1. 서론
2. 양국 설화의 유사성을 통해 본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 유형의 서사문학적 의의
3. 결핍된 인물 형상에 내포된 '이야기 세계'의 함의
4. 결론

<논문개요>

본고에서는 한국 설화 연구에서 중요 유형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를 대상으로 터키의 <봉사, 귀머거리, 벌거숭이>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 설화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는 열 핏 결핍의 전형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자신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 눈에 뻗어 보이는 거짓과 허세를 보임으로써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유발토록 하는 이야기로 여겨지기 쉬우며, 깊이 음미할 만한 의미가 크지 않은 듯 보이기 쉽다. 이에 더해 극히 전형적인 인물과 단순한 서사에 의해 연구의 입각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를 터키의 유사 유형인 <봉사, 귀머거리, 벌거숭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심상치 않은 문학적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 거의

* 이 논문은 본 연구자가 2019년 10월 18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키예프 국립 외국어대학교(Kiev National Linguistic University)에서 개최되었던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Practical Conference, "Current Problems of Modern Korean Studies in the Context of Global World Development"에 발표하였던 「한국 설화 연구의 세계화를 위한 비교 연구의 가능성 재고」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의교수(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Öğr.Gör. E-mail: hongyoun.cho@istanbul.edu.tr)

동일한 인물 설정 및 서사 구조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터키의 구비문학계에서는 설화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유자들을 이야기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입의 서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를 재고하였을 때, 이야기 속에 배치된 결핍자들의 형상은 현실 속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극단적 결핍의 상징이자, 이야기의 세계에 접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욕망 실현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 또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향유자들을 인도하기 위한 도입 서사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국내에 한정된 시각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오늘날 한국 학계의 화두인 학문의 세계화란, 다름 아니라 이처럼 여러 나라와 민족의 학문이 조우함으로써 스스로 지니고 있던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본다.

핵심어: 병신 아닌 척하기,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 별거숭이, 도입 서사, 이야기의 세계, 욕망, 가능성

1. 서론

최근 한류 문화에 대한 유래 없는 호응과 관심에 힘입어, 이를 한국학 세계화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을 위한 강의와 학과가 속속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한국학의 르네상스라고 불릴만한 일대 변혁의 한 가운데서, 한 명의 한국학 연구자로서 반문하게 된다. 현재의 한국학은 세계 인류에 기여할 만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한국학이 세계와 만남으로써 본래의 한계를 벗어나 더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 아래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 봤을 때, 적어도 문학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상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교육 및 연구 여건 속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 주로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써 주변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마저도 보다 고차원적인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고전문학 교육 및 연구는 논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세계화를 위한 나름의 길을 설화 비교 연구를 통해 찾고자 한다.

“인간 존재의 모든 중요한 모티프를 함유함으로써 세계를 함유한다.”¹⁾는 평은, 설화가 인간 보편의 삶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담지하는 문학 장르임을 지적한다.²⁾ 그와 같은 보편성은 설화 연구를 통한 범세계적 소통 가능성을 가능케 한다. 특히 설화의 경우 세계 여러 지역에 유사 유형의 광포설화가 전승되어 온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이야기 유형이 각지로 전파되었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편적 인간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인류 공통의 문제의식이 지역별·민족별로 각기 유사한 이야기를 자아내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설화가 담보한 그와 같은 보편성과 원형성은 각국의 유사 유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유형만을 분석했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설화 연구에서 중요 유형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를 대상으로 터키의 <봉사, 귀머거리, 별거숭이>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국 설화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인물들이 스스로 장애가 없는 듯 행동한다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견 ‘근거 없는 허세에 대한 비웃음’을 목적으로 한 설화 유형으로 여겨질 법하며,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표면에 노출된 서사로 보이기 쉽다. 더하여 극히 단

1) 막스 루터, 『유럽의 민담(Das Europäische Volks märchen)』, 김홍기 옮김, 보림, 2005, 122 쪽.

2) Bruno Bettelheim, *The Uses of Enchantment*, New York: Raines & Raines, 1975, pp.15-16.

형의 서사이기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심층의 의미를 구명하기에도 뚜렷한 입각점을 찾기 어렵다. 이 유형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러한 점들이 고려된 결과이리라 본다. 문학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든 내포한 의미의 측면에서든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유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인물과 사건이 제시되는 터키의 <봉사, 귀머거리, 벌거숭이>의 경우, 터키 구비문학 연구자들을 통하여 '설화 문학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유형'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 또한 설화 문학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한 설화 문학의 정수(精髓)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그 가치를 재고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본고에서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설화 속 인물들과 사건이 설화의 어떠한 특성을 형상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연구를 통해 소외되었던 설화 유형을, 해외 유사 설화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조명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수많은 한국 설화 연구자들이 세계 설화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설화의 숨겨진 가치들을 재인식하고 발전적인 연구의 길을 찾도록 추동하는 한국 설화 연구 세계화의 선례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2. 양국 설화의 유사성을 통해 본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 유형의 서사문학적 의의

한국 설화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³⁾는 『한국구비문학대계』⁴⁾ 상의

3) 아직까지 해당 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기에 통용되는 유형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상 이 유형의 설화에 대한 제목은 각편 마다 상이하나, 각편의 양상 및 공통성을 고려하여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로 유형 명칭을 정한다.

4) 이후로는 본문에 한해 '대계'로 표기한다.

유형분류로 '44 그를만해서 그르기' 중, '444 별난 녀석들의 괴상한 짓(성격 탓에 상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기인의 기행, 병신의 비정상적인 행위)' 유형에서도 '444-6 병신 아닌 척하기'로 분류되는 이야기 유형이다.⁵⁾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각편은 대계 상에 <소경, 코뽕뽕이, 앓은뱅이 이야기>⁶⁾, <병신 노릇 안하려는 세 병신>⁷⁾, <언청이 입술 덮은 버드나무잎>⁸⁾,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⁹⁾의 4편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중 <언청이 입술 덮은 버드나무잎>은 나머지 셋과 비교하였을 때 인물의 설정과 서사 맥락에 차이가 있어 별도 유형으로 보는 것이 옳다. 오히려 '444-9 소경 남편과 병어리 아내' 유형으로 분류된 <앓은뱅이·귀머거리·소경>¹⁰⁾을 위의 셋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어 총 4편의 각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편마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3인이 등장하여, 각각이 지닌 장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야기의 골자이다.

위에 제시된 대계의 유형 분류는 주요 등장인물의 특성과 이야기에 제시된 상황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 있는 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유형명칭 자체에 이 설화 유형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 설화 유형은 '옳지 않은 인물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이며, 그 옳지 않은 행동이란 '비정상적 인물들의 비정상적 행위'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장애를 지니지 않은 척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비정상적 인물들이 스스로의 비정상성을 가리기 위해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이야기로서, 범상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을 유발토록 하는 유형의 이야기로 구분 짓고 있는 것이다.¹¹⁾ 이처럼 비정상

5)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 I - 한국설화색인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460쪽.

6) 김순이, 『한국구비문학대계』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307-308쪽.

7) 배상오, 『한국구비문학대계』 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2쪽.

8) 배상오, 『한국구비문학대계』 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0쪽.

9) 최점석, 『한국구비문학대계』 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21-122쪽.

10) 강한병, 『한국구비문학대계』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32-33쪽.

적 인물들의 기행을 서사의 핵심으로 판단내리고 있는 유형명에서 이 이야기를 단순한 소화(笑話)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¹²⁾ 이를 전제하고 이야기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가 모여 있던 중, 귀머거리가 “어딘가에 잔치가 벌어졌는지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였다. 그러자 봉사는 “과연 저 쪽에 깃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하고, 둘의 이야기를 앓은뱅이는 “그렇다면 빨리 거기서 가자.”라고 하였다.¹³⁾

위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 속 인물들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눈이 보이는 것처럼, 귀가 들리지 않아도 귀가 들리는 것처럼, 걸을 수 없어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 듯 보인다. 이에 자신의 장애를 감추고자 역설적인 언동을 보이는 인물들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향유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소화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각각의 등장인물, 각각 다른 장애를 지닌 세 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허세의 중첩, 이와 같은 서사 전략이 등장인물들의 행위에 전형성을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향유자들의 비웃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이러한 유형 분류 자체에 장애인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유형 분류자의 본의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를 위한 것이었음은 이유도 없거니와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피하며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12) 이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연구자들의 시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당시에 이야기의 유형을 구분지었던 명칭을 통해 그 생각을 가늠해볼 수 있을 뿐이다.

13) 인용된 각편은 각각의 인물이 지닌 장애에 배치되는 인물의 언동이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 것으로써 이 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최점석,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 밀양읍, 『한국구비문학대계』 8-7, 307쪽).

- a. 귀머거리//들림 : 불능//가능
 - b. 봉사//보임 : 불능//가능
 - c. 앓은뱅이//빠른 이동 : 불능//가능
- ∴ a-c = 역설의 중첩 → 인물과 상황에 전형성 부여 → 웃음(비웃음)의 극대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유형의 서사를 단순히 ‘웃음의 유발을 위한 것’이라 보는 것 자체로 이 이야기가 무가치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신동훈은 소화의 웃음이 지닌 의의를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웃음은 그 자체로 삶의 방식이다. 담고 있는 뜻과 상관없이, 유쾌한 웃음은 그 자체로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마음속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준다. 특히 민중에게 있어 그러한 웃음이 지닌 의미는 특별하다. 공동체를 확인시키는 가운데 힘든 삶을 보듬어주고 기력을 충전하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다.”¹⁴⁾ 결국 한 자리에 모여 한바탕 웃음 짓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문학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가 유발하는 웃음의 성격이 ‘비웃음’, 혹은 ‘쓴웃음’에 가깝다는 것과 그러한 웃음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다분히 약자를 객체화 함으로써 정신적 만족을 얻는 인간 사회의 폭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웃음 또한 건강성을 잃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속 장애인 의 형상을 실제 현실 속의 신체적 약자로 보지 않고 ‘정신적 불구의 상징’으로 본다면 그러한 불편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결핍일진데, 스스로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 눈에 보이는 거것으로 자신을 포장함으로써 오히려 정신적 빈곤상을 드러내는 모습은 우리 현실 속에 만연한 정신적 불구자의 형상이다. 이 설화는 그러한 우리의 현

14) 신동훈, 「민담의 세계」,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 200쪽.

실 모습을 자조하게 함으로써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신적 건강성의 회복을 추동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화에 설화 집단의 삶의 방식과 시대인식, 상황에 대한 통찰 등이 투영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¹⁵⁾

이처럼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의 서사를 소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에도 그 서사는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다만 너무나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는 인물 형상과 단순한 서사 구조를 통해 그 서사 목표가 표층적으로 드러난다는 점, 간단명료하게 끝맺음 되는 짧은 서사로 인해 다른 방향의 해석 가능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논쟁적 연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에 나타난 인물들의 언동을 그저 '거짓된 허세'로 판단한다면, 이 설화 유형을 단순한 우스개 소리로, 연구대상으로서 특별한 의의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여길 법하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터키의 <봉사, 귀머거리, 벌거숭이>와 나란히 놓고 보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터키 설화 <봉사, 귀머거리, 벌거숭이>는 특별히 정해진 유형명이나 제목 없이 전해지고 있으나 『라마단의 서(Ramazan Name)』¹⁶⁾, 『메스네비(Mesnevi)』 등의 고전 선집 속에 유사 유형 이야기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¹⁷⁾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식의 유형 명칭을 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비교 연구에 용이하리라는 판단으로 <봉사, 귀머거리, 벌거숭이>로 지칭하기로 한다. 특히 『메스네비』¹⁸⁾에 수록된 각편의 경우 한국의 <봉사,

15) 함복희, 「笑話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동아시아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513-514쪽.

16) Âmil Çelebioğlu, *Ramazan Name*, Istanbul: Milli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1995, pp.80-82.

17) Pertev Naili Boratav, edited by M. Sabir Koz, transed by Hande Ayşen Birkalan, *Pertev Naili Boratav and His Contributions to Turkish Folklo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30.

18) 『메스네비(Mesnevi)』는 13세기 이슬람 종교철학자인 메블라나 젤레레민 루미(Mevlânâ Celelettin Rumi)와 후사메틴 켈레비(Hüsamrttin Çelebi)의 대답을 통해 발화된 잠언이나

귀머거리, 앓은뱅이)에 나타난 인물 형상과 서사 구조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각편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그에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¹⁹⁾ 이에 <별거숭이>의 서사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 나라에 사는 봉사, 귀머거리, 별거숭이가 있었다. 봉사는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었으며, 귀머거리는 귀가 아주 밝았고, 별거숭이의 옷자락은 아주 길었다. 어느 날 봉사가 “저기 말을 탄 군사들이 오고 있어.”라고 하자, 귀머거리는 “그래, 그들이 하는 말들이 들린다.”고 했고, 별거숭이는 “그들이 내 긴 옷자락을 자를까 봐 두려워.”라고 말했다.²⁰⁾

위의 인용을 보면 터키의 <별거숭이>에서도 한국의 <앓은뱅이>와 마찬가지로의 인물과 서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체적 장애, 혹은 결핍이 있는 세 명의 인물, 봉사, 귀머거리, 별거숭이가 등장하여 봉사는 멀리 볼 수 있노라고, 귀머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노라고, 별거숭이는 아주 긴 옷자락을 가지고 있노라고, 자신들의 장애나 결핍 상황에 반하는 언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인물의 제시와 언동의 중첩구조로서 전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a". 봉사//보입 : 불능//가능

b". 귀머거리//들림 : 불능//가능

c". 별거숭이//긴 옷자락 : 결핍//충족

∴ a" - c" = 역설의 중첩 → 인물과 상황에 전형성 부여

다수의 교호적인 설화들을 휴사메틴 첼레비가 기록·편찬한 문헌으로서 터키 정신사상의 고전 중 하나로 중요시되고 있다.

19) 양국 설화의 유형명이 유사하게 설정된 관계로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에 이후로는 한국의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를 <앓은뱅이>로, 터키의 <봉사, 귀머거리, 별거숭이>를 <별거숭이>로 지칭하여 두 유형의 명칭 중 변별력이 있는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양자의 구분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20) Mevlânâ Celettin Rumi & Hüsamrttin Çelebi, transed by Abdülbaki Gölpınarlı, *Mesnevi Tercümesi III*, Vol.2, Istanbul: Milli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1985, p.317.

이를 보면 터키의 <별거숭이> 또한 단형의 소화로서 인물의 언동에 대한 향유자들의 조소를 유발하는 이야기인 것으로 여길법하다. 실제로 『메스네비』에 수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세속인, 그들의 어리석음과 선지자들의 교훈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Sebalıların kıssası, onların ahmâklıkları ve peygamberlerin nasihatlerinin o ahmâklara tesir etmemesi)”라는 헤드라인으로 항목화 되어 있다.²¹⁾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구술한 메블라나(Mevlânâ Celelettin Rumi)는 인물들의 존재가 헛된 희망과 욕망, 두려움에 사로잡혀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들을 수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였다.²²⁾ 그러한 점에서 본디 세태에 대한 풍자적 시선을 반영하여 이야기를 전하였던 구술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바, 일종의 우연으로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터키의 <별거숭이>에는 한국의 <앉은뱅이>에 더해 부연되는 내용이 있다. <별거숭이> 유형에서는 일관적으로 이야기 속 인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이야기 나라’이며 그들이 “멀리 볼 수 있고, 아주 귀가 밝으며, 아주 긴 옷을 입고 있다.”고 서술자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물들 스스로 자신들이 보고, 듣고, 옷을 입고 있음을 말하는 것과 다른 결을 지닌다. 서술자가 먼저 그들의 능력이나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은 정말로 장님이면서도 멀리 보고, 귀머거리이면서도 잘 듣고, 별거숭이이면서도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야기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별거숭

21) *Ibid.*, p.317.

22) “Sağır istektir. Bizim ölümlümüzi duyar da kendi ölümünde sağır kördür. Kör de hırstır. Halkın ayıplarını inceden inceye görüp söyler durur. kendi aybını görmeğe gözü kördür. Ancak halkın kusurlarını öğrenmeye çalışır(*Ibid.*, p.317).”

이> 속 인물들의 언동도 ‘거짓된 허세’가 아닌 것이 되는 바, 그 이야기도 단순히 비웃음을 유발하고 세태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게 된다. 구술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 이야기의 본질은 전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터키의 구비문학 연구자들은 <별거숭이>를 단순한 소화의 차원으로 보거나, 이야기 속 인물들의 비정상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메스네비』에 수록된 <별거숭이>는 본디 전해지던 이야기에 종교철학자인 메블라나의 우연적 해석이 덧붙여 있으나, 본래 이 이야기는 청자를 초자연적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도입’의 역할을 한다고 논한다.²³⁾ 여기서 새로운 세계란 다름 아닌 ‘이야기 나라’, 이야기의 세계이다.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더러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한다. 그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바로 이야기의 세계이며, <별거숭이>는 그와 같은 이야기의 세계를 압축적으로 형상화 하여 제시하는 이야기 세계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의 동일한 인물과 서사 구조를 지닌 한국의 <앓은뱅이> 또한 단순한 소화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세계의 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결핍된 인물 형상이 지닌 ‘이야기 세계’의 함의

한국의 <앓은뱅이>를 터키의 <별거숭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이야기 세계로 인도하는 도입의 기능을 지닌 이야기로 볼 수 있다면, 이야기 속의 결핍된 인물 형상, 즉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의 형상이 지닌 의미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야기 세계’의 상징으로서 이야기의

23) Pertev Naili Boratav, *op.cit.*, p.9; Abdulkadir Emeksiz,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한·터 문학 심포지엄』 5, Istanbul Belediyesi, 2017, 74쪽.

세계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의 모습을 응결한 형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얇은뻥이>와 <별거숭이> 속의 결핍된 인물 형상이 함의하는 이야기 세계의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이야기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욕망’이다. 프로이트(S. Freud)는 문학 작품의 창작이란, 창작자의 억압된 욕망이 작품을 통하여 소망충족적으로 형상화 되는 백일몽(白日夢)의 과정임을 논한 바 있고²⁴⁾, 이에 동의하여 문학 창작의 기본 동기가 인간의 욕망과 꿈에 의한 것임을 지지하는 견해는 매우 일반적이다.²⁵⁾ 한계적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들이 이야기라는 낯선 세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취함으로써, 인간은 현실의 억압을 딛고 건강한 정신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한 욕망 성취, 이야기의 본령에 해당하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합한 형상이 바로 한국의 <얇은뻥이>와 터키의 <별거숭이>에 나타난 장님, 귀머거리, 얇은뻥이, 별거숭이의 형상이다.

신체적 장애의 문제만큼 다층적으로 인간의 삶을 저해하는 문제는 찾기 어렵다. 신체를 뜻대로 사용하지 못함에서 오는 생활상의 불편에 더하여, 주위의 시선에 의한 갈등, 자기실현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장애로 인한 고통만큼 뚜렷이 인지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와 같은 장애를 지닌 이들이 무엇보다도 욕망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장애가 없는 상태로의 전환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장애를 지닌 이들은 자신들의 장애를 평생 지고 갈 천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장애-비장애의 경계가 무너지곤 한다. 잘려나간 손이 돌아났다는 <손 없는 색시>에서 그러하며, 뻥인과 얇은뻥이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는 <지성이면 감천>, <숙영랑·앵영랑 신

24)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2003, 134-175쪽 참조.

25) 정운채, 『한국고전문학과 문학치료』, 『조선학보』 183, 조선학회, 2002, 59쪽; 신동훈, 앞의 책, 181쪽.

가>에서 그러하다.²⁶⁾ 이에 현실에서 장애 해결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야기의 세계는 자신들의 간절한 욕망을 손쉽게 충족시켜주는 해결의 장인 것이다. 즉 <앓은뱅이>와 <벌거숭이>에 배치된 봉사, 귀머거리, 앓은뱅이의 형상은 현실 속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욕망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능성의 상징이 된다. 이는 장애를 지니지 않은 이들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건본이 된다. 현실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통해 장애 극복의 욕망을 손쉽게 충족해내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욕망 문제도 이야기의 세계에 빠져 들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난 또한 현실 속 인간을 두루 괴롭히는 삶의 화두임이 분명하다. 터키의 <벌거숭이>에 배치된 벌거숭이, 아무 것도 몸에 걸치지 못한 그의 모습은 가난 속에 헐벗은 현실 속 우리들의 고통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는 아주 긴 옷자락을 지녔다. 여기서 ‘긴 옷’은 곧 부(富)를 상징한다. 그 옛날 귀한 옷감을 넉넉히 사용하여 긴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범상한 민중들에게 극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에 따라 옷의 길이가 착용자의 부와 권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 것은 세계 보편의 상식이다.²⁷⁾ 즉 벌거숭이는 현실 속 민중의 빈곤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하면서도 그와 같은 극단적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그에 따른 부의 욕망이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찢어지게 가난한 주인공이 어느 순간 천금의 부를 얻어 행복하게 살았노라는 서사는, 이야기 문학장을

26) 물론 이와 같은 언술이 <장님, 귀머거리, 앓은뱅이>의 서사가 <지성이면 감천> 등의 유형과 본질적으로 같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장님, 귀머거리, 앓은뱅이>는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세계를 함의하는 도입서사로서 욕망 해결의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제시할 뿐이며, 장애 극복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이 펼쳐지는 여타 서사의 사례는 그러한 장애 극복의 욕망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예를 보이고자 함일 뿐이다.

27) 전통적으로 동서양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복식은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필요 없이 각 부분을 길게 늘어뜨린 오늘날의 결혼 예복 형태에서 그러한 인식의 잔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하는 모티프의 하나이다. 곧 벌거숭이의 모습은 누구나 이야기의 세계에 접속함으로써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난의 고통을 덜어내고 부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형상인 것이다.

이처럼 신체적 장애로 대변되는 가장 극단적인 현실 속 인간의 결핍, 그리고 가난으로 대변되는 가장 보편적인 현실의 결핍 문제, 〈얕은뱅이〉와 〈벌거숭이〉 속 봉사, 귀머거리, 얕은뱅이, 벌거숭이의 형상은 바로 그러한 우리 현실의 결핍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의 존재들이 실상은 결핍을 지니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됨으로써 이야기의 세계가 지닌 무한한 욕망 해결의 가능성을 던지시 보여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결핍된 현실과 충족된 이야기 세계', '실제와 환상', '불능과 가능', '없음과 있음의' 사이에 놓인 역설적 형상으로써 현실의 결핍과 이야기 세계의 가능성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장님, 귀머거리, 얕은뱅이〉 속 인물 형상이 이야기 세계로의 관문에 놓일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연되었는가. 터키의 〈벌거숭이〉는 독립된 서사의 형태로 구연되기도 하고 긴 이야기의 서두에 본 이야기의 내용에 관계없이 제시된 관습구의 형태로도 존재한다.²⁸⁾ 이에 독립된 서사로 구연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관의 시작에 즈음하여 구연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이야기의 세계에 접속케 하며, 장형의 이야기에 관습구의 형태로 구연된 경우에는 이어지는 이야기에 몰입토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²⁹⁾ 후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구술되는 도입구의 역할과 동일하다. “옛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이야기 속 세계로의 여정이 시작되며 그 세계에서는 현실세계의 논리와 한계가 무너지고 상상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입구의 존재는 세계의 이야기 문화에

28) Abdulkadir Emeksiz, *op.cit.*, p.77.

29) Pertev Naili Boratav, *op.cit.*, p.90.

공통된 경향이지만, 본래 구연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관계없는 서사가 비교적 길게 구연되는 형태라는 점이 특이하다.³⁰⁾

한국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야기로의 도입을 위해 본래 서사에 관계없는 장황한 관습구의 구연이 선행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추측컨대 독립된 서사의 형태로서, 이야기관의 형성 시점에 청중의 흥을 돋우고 곧이어 풍성한 이야기 잔치가 벌어질 것을 예고하기 위하여 <앓은뱅이>가 구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이야기관이 사멸된 상황기에 그 원형의 구연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구비문학 현장 조사의 상황에 기대어 전통적 이야기관의 모습을 재구하여 볼 수 있겠다. 보통 현장 조사시 형성되는 이야기관의 경우 단형의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구술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점점 장형의 복잡한 이야기 구연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³¹⁾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앓은뱅이>도 터키의 <별거숭이>와 마찬가지로 이야기관의 형성 단계에서 이야기의 세계로 청중들을 이끄는 도입 서사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때 <앓은뱅이>가 제시하는 이야기 세계의 가능성에 더하여 그 서사가 유발하는 가벼운 웃음은 청자로 하여금 허구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느긋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긴 논의를 정리하자면, 그간 한국의 <앓은뱅이> 유형 설화는 연구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터키의 <별거숭이> 유형에 비교해 본 결과, 그 이야기가 이야기관에 참여하는 청중들을 무한한 욕망 실현의 가능성을 지닌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는 ‘도입’의 기능

30) 유럽의 민담들에서 본 서사의 끝에 장황한 관습구가 붙는 방식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서사의 뒤에 덧붙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암시를 전하는 방식이다. 곧 이야기로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자로 하여금 이야기의 세계에서 실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환’의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31) 이는 이야기 조사 현장이 최대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이야기관이 형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조사자가 특정 이야기 유형의 구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제되는 경우에는 제보자들이 조사자의 권위를 따름으로써 구연되는 이야기들의 선후관계에 특정한 흐름이 형성되지 않는다.

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의 향유에 있어 매우 주요한 기능과 의의를 지닌 유형이 마땅히 의미부여 받지 못했던 것이 된다. 그와 같은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설화 비교 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설화 <앉은뱅이> 유형을 거의 동일한 인물 형상과 서사 구조를 지닌 터키의 <별거숭이> 유형에 비교함으로써, 국내 연구를 통해 조명되지 못했던 <앉은뱅이> 유형의 서사 문학적 기능과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앉은뱅이>는 결핍의 전형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자신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 눈에 뻗히 보이는 거짓과 허세를 보임으로써 향유자의 비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로 보이기 쉽다. 그렇게 본다면 <앉은뱅이>는 허세와 과장으로써 결핍을 가리고자 하는 현실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고 자조하도록 하는 풍자적 성격의 소화로써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를 터키의 유사 유형인 <별거숭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앉은뱅이>와 거의 동일한 인물 설정 및 서사 구조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터키의 구비문학계에서는 설화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유자들을 이야기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요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그러한 관점에서 <앉은뱅이>를 재고하였을 때, 이야기 속에 배치된 결핍자들의 형상은 현실 속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극단적 결핍의 상징이자, 이야기의 세계에 접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욕망 실현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의 <앉은뱅이> 또한 터키의 <별거숭이>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향유자들을 인도하기

위한 도입 서사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국내에 한정된 시각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오늘날 한국 학계의 화두인 학문의 세계화란, 다름 아니라 이처럼 여러 나라와 민족의 학문이 조우함으로써 스스로 지니고 있던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리라 본다. 이에 추후 더욱 활발한 설화 비교 연구가 한국 문학 연구의 세계화를 추동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

김대행 외, 『한국 언어 문화의 한 특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류중영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2005.

박근서, 『코미디, 웃음과 행복의 텍스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서대석, 「韓·中 笑話의 비교 연구」, 『어문학논총』 25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393-420쪽.

이석래, 「韓·中 笑話比較研究」, 『성심어문논집』 16, 성심어문학회, 1994, 5-50쪽.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정운채, 「한국고전문학과 문학치료」, 『조선학보』 183, 조선학회, 2002, 47-69쪽.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 I - 한국설화색인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조희웅, 『한국 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함복희, 「笑話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동아시아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503-540쪽.

Lüthi, Max., *Das Europäische Volksmärchen*, 1947; 김홍기 옮김, 『유럽의 민담』, 보림, 2005.

Freud, 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1897; 김인순 옮김,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Emeksiz, Abdulkadir.,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한·터 문학 심포지엄』 5, Istanbul Belediyesi, 2017, 74쪽.

Çelebioğlu, Âmil., *Ramazan Name*, Istanbul: Milli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1995.

Bettelheim, Bruno., *The Uses of Enchantment*, New York: Raines & Raines, 1975.

Rumi, Celelettin Mevlânâ & Çelebi Hüsamrttin, *Mesnevi Tercümesi* III, Vol.2, transed by Abdülbaki Gölpınarlı, Istanbul: Milli Eğitim Bak

anlığı Yayınları, 1985.

Boratav, Naili Pertev., *Pertev Naili Boratav and His Contributions to Turkish Folklore*, edited by M. Sabir Koz, transed by Hande Ayşen Birkala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6일 투고되어 12월 18일 심사 완료하고 12월 18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A Research on the Introductory Function of "Blind, Deaf, and Cripple" Korean Folklore

Cho, Hong youn (TR Istanbul University)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Blind, Deaf, and Cripple," which was not considered as an important aspect in Korean folklore research, compared to the Turkish "Blind, Deaf, and Naked." Korean tales on "Blind, Deaf, and Cripple" are easily considered as simple stories that cause humorous people to laugh by showing obvious falsehoods and bluffs to cover their deficiencies.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starting point for the study on this narrative. However, when compared with the similar type of the Turkish "Blind, Deaf, and Naked," recognized as a narrative of introduction in the academic field of Turkey's oral literature that leads its audience to the world of stories by condensing the nature of the folklore, we can find unusual literary significance which shows almost the same character setting and narrative structure. Rethinking the "Blind, Deaf, and Cripple" from such a point of view, the image of the deprived people in the story could be understood as a symbolization of the extreme deficiencies that afflict human beings in reality and of the possibility that the infinite desires can be obtained by accessing the world of stories. In the end, the "Blind, Deaf, and Cripple" of Korea could also confirm the possibility of functioning as an introduction narrative to guide visitors into the world of stories with infinite possibilities.

Key words: Pretend not to be ashamed, Blind, Deaf, Cripple, Naked,
Intro, World of stories, Desire, Possibility